

월/요/광/장

장성민



북한이 단계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과거로의 회귀이지, 결코 미래를 향한 저항이 아니다.

오래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줬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북한의 군사기자들이 공업지구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개성공단과 선군(先軍)정치

답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는 돈을 준 기업인이 아니라 다시 총을 든 군인들이 드나들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이 행군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끝모를 굶주림의 행군이다.

러면 지도층 간부는 “동무, 허리띠에 새로운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라도 풀라매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한다.

이런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핵 동포에게 개성공단은 고난의 행군을 끝내는데 희망의 창이다.

개성공단의 문을 닫으면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에 역행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반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도 반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급주락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급주락할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핵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남쪽 국민들의 동정과 지지를 얻지 못한다.

남한 기업들은 아무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텅 빈 벌판에 경제특구를 설치해 봐야 아무도 북한에 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제 선군정치(先軍政治)보다는 선경정치(先經政治)를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종합대책 또 연기 ‘속 빈 강정’ 안돼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일주일 연기했다.

지방발전종합대책은 당초 지난달 27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과 ‘5+2광역경제권’ 선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전 해진 종합대책의 윤곽은 실망스럽게 그 지었다.

지방 로스쿨도 수도권 출신 ‘천국’이라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합격자들이 발표됐다.

전남대 로스쿨은 합격자의 67%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이런 상대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방규제 개선 등 기존 내용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민심은 종합대책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의 말처럼 정부가 기존 정책을 얼마나 바꾸지는 모르지만 미래로는 안 된다.

지방 로스쿨도 수도권 출신 ‘천국’이라니

지방에 생애근거가 없는 수도권 출신 로스쿨을 마치면 연구지인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어떤 제도이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로스쿨의 성패는 법조인의 권역별 ‘균형’과 값싸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달려 있다.

기고

이병담



집안의 큰 일이나 우스갯말을 이야기 할 적에 사람들은 농사짓는 일에 빗대곤 한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적에 농부는 고랑을 내어 이랑을 만든다.

농부도 하는 일, 왜 정부는 못할까?

그런데 우리의 정부가 하는 큰 농사는 과연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 싶다.

더구나 지금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로부터 촉발된 금융위기가 총체적인 경제 위기로 확대되어 나라가 온통 위기 앞에 내몰려 있다.

5~10년마다 반복되는 대가뭄, 연례 행사가 되다시피한 홍수피해에 대한 수

해복구나 예방으로 이전 정부에서는 몇 십 조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썼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하천정비, 즉 고랑 한번 제대로 치우지 못해 수질악화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물난리로 홍수피해를 입었고, 가뭄으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심각했다.

이런 점에서 하천정비 사업은 황폐화된 자연도 살리고, 홍수도 예방하며, 수질이나 환경개선 등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4대강은 홍수에 대비하여 이렇듯 높게 쌓는, 즉 강둑만 높게 쌓았을 뿐 고랑을 치우는 강바닥에 대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바닥이 높아져 장마철에 조그만 비가와도 범람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심각했다.

이런 점에서 하천정비 사업은 황폐화된 자연도 살리고, 홍수도 예방하며, 수질이나 환경개선 등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천정비 사업은 황폐화된 자연도 살리고, 홍수도 예방하며, 수질이나 환경개선 등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영산강갯벌살리기협의회 공동대표)

기고

황영국



‘제 5의 사회보장제도’로 불리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평가 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공동 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제부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발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발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 생애가 살았던 그 옛날에는 논과 개울에 먹이가 많았다.

돌째는 제도시행 초기 일부 장기요양 기관에서 유사제품 공급, 중복 청구, 무자격자 청구, 요양시간 부풀리기 등 부당청구를 하는 사례를 올리며 계속해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신뢰구축으로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자는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안심하고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이제부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수발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지역 시설을 운영해 비용산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과 문제점들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여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 서부지사장〉

황새·따오기·저어새 등 멸종 위기는 환경오염 탓

겨울철 철새의 도래를 계기로 우리 나라 텃새인 황새 이야기가 하고 싶다.

황새는 사냥 실력이 형편없지만 쇠뿔로와 왜가리는 능수능란한 사냥술을 갖췄다.

로 있어서 쉽게 사냥할 수 있어 황새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황새와 비슷하게 먹이를 잡는 따오기, 저어새, 노랑부리백로들도 멸종위기에 몰렸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응우동

건널목에 자전거 이용 ‘전용 공간’ 만들어야

며칠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에 노트북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부딪쳤다.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가 녹색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정부나 자차단체의 자전거이용에 관한 지원 대책은 별로 없는 듯하다.

건너야 함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건강에도 좋아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나 건널목 옆에 자전거 횡단 실선을 그려 자전거도 보행자와 같이 횡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無等鼓

코페르니쿠스는 이단이자 금기인 지동설을 담은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출간하면서 ‘가설’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20세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77년 리영희는 유신시대 대표적 지식인 ‘8영인과의 대화’와 ‘우상과 이성’을 잇따라 내놓는다.

리영희는 이 두권의 책 때문에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그가 1994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나날이 멀어지는 미래를 향할 수 없다.

다. 좌편향 교과서 개정작업에, 학생들에 대한 현대사 재교육도 한창이다.

좌우의 균형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